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韓客酬唱』 연구*

한 태 문**

| 목 차 |

- I. 머리말
- II. 『韓客酬唱』의 형성배경과 수록 시문의 현황
- III. 『韓客酬唱』에 반영된 양국 문사 교류의 양상
- IV. 맺음말

| 국문초록 |

이 글은 국립해양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韓客酬唱』의 형성배경과 수록 시문의 현황 및 특징, 그리고 양국 문사 교류의 양상을 살핀 것이다.

『韓客酬唱』은 1682년 새로운 關白의 습직을 축하하는 통신사가 일본에 파견되었을 때 양국의 문사들이 활발하게 교류를 펼친 결과물 가운데 하나이다. 일본 長門州 萩藩의 서기인 山田原欽이 제술관 成琬, 종사관 서기 李聘齡, 부사 비장 洪世泰 등 통신사 문사들과 2차례 필담창화한 내용을 모아 1683년 5월 두루마리로 만들고 『天和二年八月廿有九日韓客酬唱』이라 표제를 달았다.

『韓客酬唱』은 세로 29cm, 가로 935cm의 紙本墨書로 한 폭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고, 1차 모임에서의 15수, 2차 모임에서의 10수 등 총 25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hantm@pusan.ac.kr

시의 형식은 서정성을 강조하면서도 짧은 만남에서 빠르게 수창하기 위해 1수만 제외하고 모두 칠언절구로 되어 있다.

『韓客酬唱』의 내용은 크게 1차 모임(8월 29일)과 2차 모임(9월 2일)으로 나눌 수 있다. 對馬島 記室의 소개로 이루어진 1차 모임은 통신사와 필담창화를 원하던 자신의 소망이 실현된 데 대한 山田原欽의 감회와 함께 異國 영재의 文才에 대한 조선 문사의 찬탄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비해 조선 문사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2차 모임은 서로의 文才를 재확인하고 만나자마자 곧 이별해야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처럼 『韓客酬唱』은 당시 통신사 문사와의 교류에 대한 일본인의 열망은 물론, 17세기 이후 문학을 비롯한 일본 문화계의 전반적인 성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교류사적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 韓客酬唱, 山田原欽, 통신사, 필담창화, 성완, 이담령, 홍세태

I . 머리말

2016년 3월 30일, 부산문화재단과 일본 NPO법인 조선통신사연지연
락협의회는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공동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사무국에 제출했다.
총 12차례의 양국 공동학술회의와 추진경과보고회 그리고 신청서 조인
식을 거쳐 확정된 등재목록은 크게 ①외교기록, ②여정의 기록, ③문화
교류의 기록으로 한국 63건 124점, 일본 48건 209점 등 총 111건 333점
이다.¹⁾

1) 등재사업은 2012년 5월 5일 부산문화재단이 처음으로 제안하고 일본 NPO조선통신사
연지연락협의회가 이에 호응하면서 추진된 것이다. 2014년 12월 20일 부산에서 양측
학술위원들이 모여 제1회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 이래 총 12차례의 공동학술회의를
통해 최종 목록을 선정하고, 2015년 12월 8일 부산 누리마루국제회의실에서 추진경과

한국 측 등재목록의 경우 ‘외교기록’은 『通信使謄錄』·『邊例集要』 등 2건 32점, ‘여정의 기록’은 『慶七松海槎錄』·〈槎路勝區圖〉를 비롯한 38건 67점, ‘문화교류의 기록’은 〈達磨折蘆渡江圖〉·『東槎唱酬集』을 비롯한 23건 25점이다. 그 가운데 부산지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은 부산박물관 10건 10점, 국립해양박물관 4건 4점으로 총 14건 14점이다. 이들은 모두 문화교류의 기록에 속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필자는 한국 측 학술위원의 자격으로 목록 선정 작업에 참여하면서 국립해양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天和二年八月廿有九日韓客酬唱』(이하 『韓客酬唱』, *으로 약칭)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이 작품은 이미 목판본 필담창화집인 『和韓唱酬集』과 山口縣 土族 村田春信이 펴낸 『山田原欽先生事蹟』에도 수록되어 있지만²⁾ 원본을 접하기는 처음이다. 이 작품은 대상목록에 같이 선정된 부산박물관의 〈義軒·成夢良筆行書〉, 국립해양박물관의 〈朝鮮通信使奉別詩稿〉 등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酬唱의 양도 많고 보존상태도 지극히 양호한 편이다.

그동안 필자는 靑の浦의 福禪寺, 牛窓의 本蓮寺, 京都의 相國寺 慈照院, 興津의 淸見寺 등 통신사가 묵었거나 관련이 있는 일본 사찰을 직접 답사하고 이들이 소장하고 있는 통신사 관련 酬唱詩文을 중심으로 연구

보고회를 거쳐 2016년 1월 29일 對馬島 對馬그랜드호텔에서 신청서조인식을 가졌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공동등재 추진경과보고회 자료집』(부산문화재단·NPO법인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 2015),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공동 신청서 조인식 자료집』(NPO법인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부산문화재단, 2016)을 참조.

- 2) 『和韓唱酬集』은 일본 京都의 서점인 丁子屋이 전국에 산재한 1682년 통신사 사행원과 일본인들이 나눈 시와 필담을 모아 1683년 총 7권으로 편찬한 목판본 필담창화집이다. 이 중 『韓客酬唱』은首권에 일본인 祖辰·高伯順·松下見林·林鷄峰·林整宇·南春庵·坂井漸軒 등이 통신사와 나눈 수창시와 필담을 이어 수록되어 있다. 『山田原欽先生事蹟』은 1890년에 ‘長周叢書’의 하나로 펴낸 것으로 『山田原欽賴熙系譜』·『山田原欽賴熙傳』·『山田市兵衛賴國傳』·『復軒說』·『山田復軒先生行狀』·『八江菰八景詩』, 『東廬山十景詩』 등과 함께 『韓客酬唱錄』이 수록되어 있다.

를 진행해왔다.³⁾ 하지만 정작 국내에 남아 있는 통신사 관련 수창시문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진행한 적이 없다. 그야말로 제 집 사정은 돌보지 않고 힘들게 남의 집만 구석구석 쏘다닌 꼴이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반성에서 먼저 부산의 국립해양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韓客酬唱』의 창작배경과 수록 시문의 현황, 그리고 『韓客酬唱』에 반영된 양국 문사 교류의 양상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지금까지 『韓客酬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韓客酬唱』이 포함된 『和韓唱酬集』에 대한 번역과 개괄적인 해제만 겨우 이루어졌을 뿐이다.⁴⁾

II. 『韓客酬唱』의 형성배경과 수록 시문의 현황

1. 壬戌通信使(1682)의 파견과 양국 문사 교류의 활성화

1680년 5월 8일, 일본 德川幕府의 4대 將軍 家綱이 죽고 8월 23일 아우 綱吉이 뒤를 이어 5대 將軍이 되었다. 幕府는 전례에 따라 1681년 5월 23일 對馬藩主 宗義眞에게 통신사 방문을命했고, 그는 6월에 ‘將軍 襲職祝賀’를 이유로 조선의 예조참의에게 정식으로 서계를 보내 통신사의 파견을 요청했다.⁵⁾ 하지만 이 사행은 당시 朝日 양국 사이에 마찰을 빚던 무역 및 通信使行 관련 約條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현안문제 해결에 더 무게를 두었다. 이는 正使 尹趾完이 임금께 하직인사를 하

3) 한태문, 「淸見寺 소장 시문에 반영된 한일문화교류」, 『조선통신사연구』 3, 조선통신사학회, 2006; 「相國寺 慈照院 소장 『韓客詞章』 연구」, 『일어일문학』 42, 대한일어일문학회, 2009; 「福禪寺 소장 通信使 遺墨 관련 자료 연구」, 『어문연구』 80, 어문연구학회, 2014; 「1711년 통신사 필담창화집 『槎客通簡集』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44, 동양한문학회, 2016.

4) 구지현·고운기·하우봉·유경미 역주, 『和韓唱酬集』, 보고사, 2013, 9~13쪽.

5) 三宅英利 저, 손승철 역, 『근세 한일관계사 연구』, 이론과실천, 1991, 253~261쪽.

면서 “歲遣船이 떠나올 때 거듭 差倭를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일과 約條를 되풀이해서 설명하는 뜻을 저 나라에 주선하되 듣지 않으면 나라에 욕된 결과가 된다.”⁶⁾고 임금께 아뢰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1682년 5월 8일, 처음 선발되었던 三使 가운데 부사와 종사관이 뒤바뀌는⁷⁾ 우여곡절 끝에 정사 尹趾完, 부사 李彦綱, 종사관 朴慶後를 비롯한 473명의 임술통신사가 일본으로 향했다. 이는 1655년 통신사 이후 무려 27년 만의 사행으로, 이전 사행과 몇 가지 점에서 달랐다.

먼저 1636 · 1643 · 1655년 사행에서 이루어졌던 日光山 東照宮 방문이 일정에서 빠졌다. 따라서 祭文을 읽던 讀祝官이 없어지고 대신 製述官이란 직책이 신설되었다. 製述官은 조선에서 文才가 뛰어난 사람이 선발되었다. “製述官과 書記를 데리고 간 것은 문자 요구에 응하기 위한 것”⁸⁾이라는 1763년 통신사 정사 趙曦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제술관의 주된 임무는 日本人과의 筆談唱和였다. 이는 실제로 임술사행에 제술관으로 참여한 成琬이 “내가 사신으로 일본에 가서 동서를 오가며 어진 선비들을 만난 것이 벌써 수백 명에 이르렀다.”⁹⁾는 고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둘째로, 임술통신사는 洪禹載의 『東槎錄』과 金指南의 『東槎日錄』처럼 三使가 아닌 역관의 사행록이 많이 산출된 것이 특징이다. 중요 실무

6) 『숙종실록』 권13, 숙종 8년 5월 6일(이하 『조선왕조실록』 인용시 ‘『숙종』 013, 8 (1682), 5/6’으로 약칭하기로 함), “趾完曰 以歲遣船出來時 不可疊送差倭事及約條申明之意 令臣等周旋於彼國 而彼若不聽 則反歸辱國”

7) 김지남, 『東槎日錄』, 『東槎錄序』, 擬入三使臣望 八月十四日天點始下 又以副使從事之改易 翌年壬戌乃定. 원래 부사로 임명된 이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종사관의 경우 처음에 朴致道가 뽑혔으나 윤반이 상소한 일로 1682년 1월 7일 이조좌랑 申曄으로 바뀌었고, 신엽이 병이 들자 다시 23일에 朴慶後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서는 『숙종』 013, 8(1682), 1/7과 1/23의 기록을 참조

8) 趙曦, 『海槎日記』, 1763년 8월 3일, “製述官書記 欲其文子之酬應也”

9) 成琬, <題雪溪文稿序>(『和韓唱和集』 卷3), “不佞以槎役赴葦原 來往東西 所接賢士夫 既至數百餘人”

에 종사했던 그들의 사행록에는 역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자세한 정보가 스며들어 있다. 예를 들면 大坂 하구에 도착한 뒤 갈아타는 일본배가 樓船 6척에 40척의 小船으로 구성되고, 나누어 타는 인원의 결정은 對馬島主의 요청에 의해 赤間關에서 이루어지며, 淀浦로부터 육로노정이 시작될 때 천 여 마리의 말이 준비되었다는 것, 그리고 三使가 일본인과 만날 때 인삼차를 즐겨 권했고, 일본인의 답례품에 역관들이 일일이 회답을 했다는 사실 등이 그것이다.

셋째로, 이전 사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 각지의 문사들이 조선 문사와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일본 사람들은 詩書畵로 대표되는 조선 문화에 대한 욕구가 대단했다. 이는 사행 출발 1년 전 문위역관 卞爾標와 對馬藩 사이에 강정된 절목에도 “글과 글씨, 그림에 능한 이, 말을 잘 다루는 이, 활 잘 쏘고 말 잘 타는 이, 힘이 센 사람을 데리고 오도록 할 것”¹⁰⁾이 포함되어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幕府와 藩은 통신사와 교류하기 위해 필담창화가 가능한 한문소양을 갖춘 儒者들을 발탁하였고, 이들은 主君을 위해 조선 문사와의 필담창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당시 막부 儒官 林峰岡을 보좌하여 일본측의 외교문서를 담당했던 人見鶴山은 일본 문사들이 심지어 金重千·裴鳳章(12세)·朴成益(16세)과 같은 통신사의 小童과도 필담을 나누었다고¹¹⁾ 적고 있을 정도이다. 당시 일본 문사들의 교류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케 한다.

게다가 이들 儒官들 외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도 시서화에 대한 욕구를 드러낸다.

10) 『增訂交隣志』, 권5, 「志」, <信行各年例>, “肅宗八年壬戌…節日則辛酉入去 問慰譯官卞爾標等 講定以來 講定節目…能文能書能畫能馭善射善騎有膂力者帶來”

11) 人見鶴山, 『韓使手口錄』, 「24日」, “有正使侍童金重千之過 衆客呼其童及副使小童裴鳳章年十二等 共筆語 又有一童子曰朴成益年十六”

관사에 도착하자, 館伴에서부터 나라의 執政인 자, 심부름하는 왜인, 선비와 중, 好事者들에 이르기까지 종이와 벼루·먹을 펼쳐 날마다 와서 간절히 요구한다. 그러나 나는 시에 대해서는 더욱 어두워 부끄러운 마음이 일었지만 거절할 수 없어서, 만드시 洪道長·成伯圭에게 맡겼다. 무릇 글씨만은 내가 비록 연못의 물을 까맣게 물들일 정도로 배우진 못했지만, 좋은 종이와 깨끗한 비단이 눈앞에 쌓였고 구하러 오는 자가 북적북적하여 물리쳐도 돌아가지 않으니, 비로소 시험삼아 부끄러움을 잊고 붓을 휘둘러 써 주느라고 마침내 고역을 치렀다.¹²⁾

한학역관으로 참여한 김지남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시를 요청받았지만 시를 잘 모르는 까닭에¹³⁾ 시는 제술관 成琬과 자제군관 洪世泰에게 맡기되, 자신도 글씨를 써주느라 고역을 치렀음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임술통신사는 제술관·서기·역관·의원으로 대표되는 조선 文士와 막부 및 藩의 儒官으로 대표되는 일본 문사가 양국의 필담창화층으로 형성되어 이후 통신사를 통한 양국 문사교류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평가될¹⁴⁾ 정도로 교류를 활발히 전개했다. 일본 각지에서 이루어진 필담창화의 내용을 모아 1683년 京都의 丁子屋이 펴낸 『和韓唱酬集』을 비롯한 무려 150여 종의 필담창화집이 바로 그 결과물이다. 만약 對馬

12) 김지남, 『東槎日錄』, 1682년 8월 21일, “及到舍館 自館伴與其國執政者 以至廝養之倭及儒釋好事輩 張紙硯墨 日來求懇 而余於詩尤昧焉 愧心之發 無以爲辭 必委於洪道長成伯圭 若夫筆札 則余雖無臨池之學 好紙精縑 堆積眼前 而來者雜選 揮之不去 始試忘恥揮酒 終遂成一苦役 矢在絃上 不得不發云者 豈謂此耶”

13) 이는 岩城太守의 史官 坂板爲篤이 “廣川(김지남의 호)은 사람됨이 너그럽고 남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태도가 자못 군자의 분위기가 있었으나 비록 글자를 겨우 아는 정도라 시를 지을 수 없었으니 아쉽다”며 깊이 탄식한 데서도 확인된다. 坂板爲篤, <呈金判官案下>(『和韓唱酬集』 권4, 『兩東唱和』), “夫廣川爲人也 寬柔而能容人 態度頗有君子之風 雖稍識字未能詩 惜哉”

14) 구지현, 『통신사 필담창화집의 세계』, 보고사, 2011, 128~136쪽.

島人들이 중간에서 검열 등을 이유로 통제하지 않았다면¹⁵⁾ 양국 문사간 교류는 훨씬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고, 보다 더 많은 필담창화집이 발간되었을 것이다.

『韓客酬唱』 역시 임술통신사를 통해 이루어진 양국 문사간 교류의 결과물 가운데 하나이다. 곧 일본 長門州 萩藩의 서기인 山田原欽이 江戸 객관에서 제술관 성완, 종사관 서기 李聃齡, 부사 비장 홍세태 등 통신사 문사들과 2차례 필담창화한 詩箋들을 모아 1683년 5월 두루마리로 만들고 『天和二年八月廿有九日韓客酬唱』이라 표제를 달았던 것이다.

山田原欽은 三河守를 지낸 源範賴의 후손으로 1666년 周防國 周防府 佐波郡에서 아버지 山田時顯과 어머니 村上氏의 사이에 2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이름은 賴熙, 初名은 賴忠이며 자 原欽·舜龢, 호는 龍山·復軒이고, 5세에 대학을 읽었으며, 11세 때 궁벽한 땅에서 스승 없이 있음을 걱정한 아버지를 따라 상경하여 岩國 출신의 유학자 宇都宮遜庵을 따라 배웠다. 그 해 7월 28일 그의 영민함을 알아본 後水尾上皇이 그에게 시를 짓게 하고 한문본 <唐才子傳>을 읽게 한 뒤 “顔闕이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칭찬했다. 12세 때 堯恕法親王이 그의 재주를 사랑해 儒醫로 유명한 伊藤坦菴¹⁶⁾을 그의 스승으로 삼았다. 이후 그는 부지런히 공부하여 經史는 물론 諸子百家 등을 널리 읽고 기억하여 스승으

15) 이는 홍세태가 柳川震澤에게 “大坂城에 이르러 시와 서문을 지어 부치고 싶지만 小山朝三 등 對馬島인들이 여러모로 막아 전달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하소연하는 데서도 확인된다. 『和韓唱酬集』 二之一, 「滄浪筆語」, “僕到大坂城 作別章 并序以寄 而馬鳴之人 多方阻截故 傳達未必 可恨”

16) 東條耕, 『先哲叢談』 後, 卷2, <伊藤坦菴>, 1892, 25~27쪽, “名宗恕 字務 號坦菴 又以爲通稱白雲散人不輟齋 皆別號 平安人 仕于越前侯” 그는 1623년 9월 29일에 태어나 1708년 8월 24일에 86세의 나이로 죽었다. 福井藩의 儒官으로 村上修嶺과 함께 那波活所에게 배웠고, 古義學의 鼻祖로 숭앙받는 伊藤仁齋와 막역한 사이여서 그가 죽자 伊藤仁齋의 아들 伊藤東涯가 그를 애도하는 시를 짓기도 했다. 저서로 『老人雜話』·『坦菴文集』 등이 있다.

로부터 “참으로 뛰어난 인재(實異材)”라는 평가를 받았다. 14세 때 長門州 萩藩 藩主 毛利吉就의 충애를 받아 侍讀이 되고 15세 때 大和守 松平直矩의 명으로 <鍾秀亭記>를 지었다. 이후 攝津守 松平義行의 명으로 <生雲亭記>를, 毛利吉就의 명으로 <八江萩八景詩>를 짓기도 했다. 28세이던 1693년에는 黃檗宗에 귀의한 藩主 毛利吉就가 萩藩에 지나칠 정도의 장대한 규모로 東光寺를 짓는 일이 발생했다. 山田原欽은 藩의 재정을 염려하여 간언을 하였지만 毛利吉就가 듣지 않자 7월 14일 江戸의 藩邸에서 자살하였다. 遺稿로 『復軒詩稿』·『龍山詩集』이 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¹⁷⁾ 山口縣 萩市 瓦町47의 蓮池院에 그의 무덤이 있다.¹⁸⁾

山田原欽이 임술통신사를 만나던 때는 그가 江戸에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학문과 시문으로 이미 명성을 날리고 있던 시기였다. 게다가 통신사의 세 문사 역시 일본 문사들로부터 “학사 成翠虛, 진사 李鵬溟, 판사 安愼徽, 부사비장 洪來叔은 만나기 힘든 文才”라거나, “쓴 글에는 버릴 게 없고 순식간에 이루어졌다.”¹⁹⁾ 평가를 받을 정도로 文才가 뛰어났던 이들이다. 이처럼 양국에서 뛰어난 文才로 명성이 높았던 이들의 만남이었기에 짧은 만남에도 불구하고 주고받은 시문을 모아 『韓客酬唱』을 엮을 수 있었던 것이다.

17) 山田原欽에 대한 생애는 다음의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村田峯次郎 編, 『山田原欽源先生事蹟』 『山田原欽賴熙系譜』. 大藤納, 『防長史談』, 卷2, 『山田原欽』, 山口博古堂, 1893. 安藤紀一 編, 『山田原欽』, 明倫同窓會事務所, 1940. 萩市史編纂委員會, 『萩市史』 제3권, 萩市, 1987.

18) 安藤紀一 編, 앞의 책, 1쪽. 비석에는 “復軒山田原欽熙”(전면), “壽二十八歲藩譽正學原欽居士”(좌면), “元祿六年癸酉七月十四日歿”(우면) 등이 새겨져 있다.

19) 『和韓唱酬集』 卷4, 『東使紀事』, “凡韓人三百六十二員 身通操觚者 只四人 所謂學士 成翠虛 進士李鵬溟 判事安愼徽 副使裨將洪來叔也 可謂得文材之難也矣 和韓唱酬集 一之一, 嗚呼 三士之富文才也 操觚無舍 一瞬一息而成”

2. 수록 시문의 현황과 특징

『韓客酬唱』은 세로 29cm, 가로 935cm의 紙本墨書로 한 폭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다. 『韓客酬唱』에 수록된 시문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⁰⁾

<표 1> 수록시문의 현황

구분	작자	직명	제목	차운·증여대상	형식	수량
1차 모임	1 山田原欽	長門州書記	奉呈學士李公案	李聘齡	七絶	1
	2 李聘齡	書記	奉次復軒詞案	山田原欽	七絶	1
	3 山田原欽	長門州書記	重次前韻奉李公	李聘齡	七絶	1
	4 李聘齡	書記	重謝復軒詞案	山田原欽	詩序七絶	1
	5 山田原欽	長門州書記	次韻奉漢洲公案下	成琬	七絶	1
	6 成琬	製述官	奉呈復軒要和	山田原欽	七絶	1
	7 山田原欽	長門州書記	奉賡翠虛見示韻	成琬	七絶	1
	8 成琬	製述官	又贈一首復軒要和	山田原欽	七絶	1
	9 山田原欽	長門州書記	奉和翠虛公重示韻	成琬	七絶	1
	10 山田原欽	長門州書記	呈成學士	成琬	詩序七絶	1
	11 成琬	製述官	謹次復軒示韻	山田原欽	詩序七絶	1
	12 山田原欽	長門州書記	奉滄浪洪公	洪世泰	七絶	1
	13 洪世泰	子弟軍官	次贈復軒秀才	山田原欽	詩序七絶	1
	14 松溪	對馬儒臣	席上走和復軒見呈滄浪韻	山田原欽	七絶	1
	15 山田原欽	長門州書記	賡奉松溪見和予呈滄浪韻	松溪	七絶	1

20) 『韓客酬唱』에는 지은이가 대체로 이름이나 자가 아닌 號로 기재되어 있다. 곧 山田原欽은 ‘復軒’으로, 성완은 ‘成翠虛’, 이담령은 ‘李鵬溟’, 홍세태는 ‘洪滄浪’으로 적혀 있다. 이 글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詩題 외에는 학계에 익히 알려진 이름이나 자를 사용하여 표기하기로 한다.

구분		작자	직명	제목	차운· 증여대상	형식	수량
2차 모임	1	山田原欽	長門州書記	雨中訪翠虛成 公旅館	成琬	七絶	1
	2	成琬	製述官	走次復軒示韻	山田原欽	七絶	1
	3	成琬	製述官	又贈復軒要和	山田原欽	七絶	1
	4	山田原欽	長門州書記	奉和成學士見示韻	成琬	七絶	1
	5	山田原欽	長門州書記	奉李學士	李聃齡	七絶	1
	6	李聃齡		走謝復軒秀士	山田原欽	七絶	1
	7	李聃齡		用塵三韻呈復軒案	山田原欽	七絶	1
	8	洪世泰	子弟軍官	次贈復軒秀士	山田原欽	七絶	1
	9	山田原欽	長門州書記	重次前韻奉和 滄浪子	洪世泰	七絶	1
	10	山田原欽	長門州書記	席上贈翠虛漢洲 滄浪三子別	成琬 李聃齡 洪世泰	五律	1

도표에서 보듯 『韓客酬唱』에는 1차 모임에서의 15수, 2차 모임에서의 10수 등 총 25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山田原欽은 제술관 성완에게 6수, 종사관 서기 이담령에게 3수, 부사 비장 홍세태에게 2수, 조선 문사 모두에게 1수, 對馬島 記室 松溪에게 1수 등 총 13수의 시를 바쳤고, 성완은 5수, 이담령은 4수, 홍세태는 2수, 松溪는 1수를 山田原欽에게 바쳤다.

시의 형식은 마지막에 山田原欽이 조선의 세 문사 모두를 이별하며 보낸 <席上贈翠虛漢洲滄浪三子別>(2-8)²¹⁾이 오언율시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칠언절구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그 가운데 詩序가 달린 칠언절구도 4수 존재하는데, 山田原欽이 성완에게 부친 1수와 세 문사가 각각

21) (2-8)은 2차 모임에서 이루어진 8번째 시라는 뜻이다. 이후 『한객수창』에서 다루어진 시는 詩題 곁에 같은 방식으로 적기로 한다.

山田原欽에게 부친 1수씩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絶句는 천재의 시요, 律詩는 노력가의 시라고 하듯²²⁾ 서정성을 강조하면서도 짧은 만남에서 빠르게 수창을 하기에는 칠언절구만한 장르가 없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는 京都 相國寺 慈照院이 소장하고 있는 『韓客詞章』에 수록된 100수의 시 가운데, 칠언절구가 무려 55수나 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앞서 『韓客酬唱』에 수록된 시가 1683년에 발간된 목판본 필담 창화집인 『和韓唱酬集』과 1890년에 村田春信에 의해 발간된 『山田原欽先生事蹟』에도 수록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참고로 눈에 띄는 몇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2> 『韓客酬唱』·『和韓唱酬集』·『山田原欽先生事蹟』의 비교

비교	韓客酬唱	和韓唱酬集	山田原欽先生事蹟
표제	①天和二年八月廿有九日韓客酬唱 ②九月初二日酬唱	①없음 ②九月初二日韓客酬唱	①韓客酬唱錄天和二年八月二十有九日 ②韓客酬唱錄九月初二日
맨 뒤	제작배경, 세 문사 약력 있음	제작배경, 세 문사 약력 없음	제작배경, 세 문사의 약력과 松溪에 대한 소개 있음
詩題	‘奉呈’·‘奉次’와 ‘반을 이’가 줄을 달리함		구분 없이 한 줄로 처리
작자	대체로 시의 맨 뒤에 작자명이 붙음	대체로 詩題 뒤에 작자명이 붙음	
詩序	시의 뒤에 붙음		시의 앞에 붙음

대체로 『和韓唱酬集』은 원본인 『韓客酬唱』의 느낌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그것은 아무래도 『和韓唱酬集』이 비슷한 시기에 제작

22) 김영국, 『白玉峰의 칠언절구에 대하여-소재 ‘夕陽’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12집, 조선대 인문과학연구소, 1990, 227쪽.

된 『韓客酬唱』을 모본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山田原欽先生事蹟』에 수록된 시들은 발간시기가 무려 200년 뒤이기 때문에 『和韓唱酬集』과 山田原欽 집안에 전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재편집하여 발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Ⅲ. 『韓客酬唱』에 반영된 양국 문사 교류의 양상

1. 1차 모임 : 오랜 소망의 실현과 영재의 文才에 대한 찬탄

山田原欽과 통신사 三文士의 첫 만남은 『韓客酬唱』의 첫 머리 표제가 ‘天和二年八月廿有九日韓客酬唱’이어서 1682년 8월 29일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장소는 『山田原欽先生事蹟』에서는 江戸 本國寺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고 있지만²³⁾ 本國寺는 京都의 숙소였기에 江戸에서의 숙소인 本誓寺에서 처음 만났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 만남은 8월 25일 松平長門守가 사신을 보내 家臣인 山田原欽을 통신사 학사와 만나게 해달라고 大久保加賀守에게 간청한 결과, 對馬藩 宗義眞의 허락 명령을 받은 對馬藩의 記室 松溪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²⁴⁾

23) 村田峯次郎 編, 『山田原欽源先生事蹟』, 『山田原欽賴熙系譜』, “天和二壬戌年 朝鮮人來聘之時 於江戸本國寺 秋日兩度 與韓客筆談仕候”

24) 이는 『信使來聘江戸在留中覺書』, 『松平長門守殿より以使者 申來候者 拙者家來山田原欽與申者十六才罷成候…』(箕輪吉次, 「壬戌使行における小山朝三の位置と役割」, 『일본학연구』 34, 단국대 일본연구소, 2011, 236쪽에서 재인용)와 山田原欽이 朝三에게 보낸 <賡奉松溪見和予呈滄浪韻>(1-15)에 “뛰어난 인재 만나 보는 것 내 평소 소원이었는데 / 좋은 소개 힘입어 마음을 통하게 되었네(相見高材吾素志 依因好介得通懷)”라며 소개자로 松溪를 거론하고 있는 데서 확인된다.

신선 뗏목과 역마에 시인을 태우니	仙查驛馬載詩人
가는 곳곳 이는 흥이 정녕 새로움을 알겠네	到處定知發興新
푸른 바다 흰 구름 수많은 풍경들	滄海白雲多少景
수놓은 비단에 마름질을 더하는 건 온정균을 배운 듯	添裁錦繡學庭筠

- 山田原欽, <奉呈學士李公案>(1-1)

山田原欽이 모임에서 처음으로 지어 이담령에게 바친 시로, 이담령이 사행길에 접한 풍경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시를 지은 것을 마치 수놓은 비단에 溫庭筠의 시재를 옮겨놓았다고 찬탄한다. 온정균은 文才가 출중하여 과거시험장에서 팔짱을 여덟 번 끼며 八韻詩를 완성하였다 하여 ‘溫八叉’라는 별명을 얻은²⁵⁾ 당나라 말기의 시인이다. 山田原欽으로부터 시를 받은 이담령은 성균관 진사로 자 耳老, 호 鵬溟·漢州居士·醉翁·盤谷이며, 종사관 박경후의 서기로 사행에 참여하였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近江州 사람 柳川震澤의 질문에 詩題 <白雪何人許更裁>, 賦題 <諦觀九功舞>로 과거에 합격했다고 스스로 밝히거나, 사행에서 원역 중에 환자가 아니면 계속해서 가마를 타지 못하게 했지만 判事 安信徽와 진사 이담령은 특별히 타게 한 데서 일본인들의 후의를 엿볼 수 있다는 기록 정도가 남아 있을 뿐이다.²⁶⁾

山田原欽의 시에 대해 이담령은 일본의 풍경이 장관이어서 곳곳이 특별히 새로웠음을 칭찬하고 나그네의 꿈을 깨우는 山田原欽의 방문을 ‘베갯머리를 올리는 서릿대의 뻗는 소리’에 비유하며 반긴다.²⁷⁾ 이에

25) 孫光憲, 『北夢鎖言』 卷四(『欽定四庫全書』 子部十二, 小說家類), “溫庭雲 字飛卿 或云作筠字 舊名岐 與李商隱齊名 時號曰 溫李. 才思艷麗 工於小賦 每入試 押官韻作賦 凡八叉手而八韻成 多爲鄰鋪假手 號曰救數人也 而士行有缺 縉紳薄之”

26) 『和韓唱酬集』 二之一, 『西京筆語』 前, “李鵬溟 戊午榜也…李鵬溟 詩題白雪何人許更裁 賦題諦觀九功舞”

홍우재, 『동사록』, 1682년 8월 3일, “員役中有病索輜 則雖許乘 毋過連日 而安判事 李進士歸時特乘 可見厚意也”

대해 山田原欽은 멋진 자리에서 좋은 글을 즉시 쏟아내는 이담령의 자질을 확인한 뒤 온정균을 배웠다는 앞서 자신의 평가를 반복한다. 그리고 봉황과 기러기의 약한 깃털은 비교하기 어렵지만 솜씨 좋게 읊은 시는 온정균보다 낫다고²⁸⁾ 평가한다.

새로운 시 눈에 들어 내 시름을 깨뜨리니	新詩入眼破吾愁
문장이 웅장하고 심오하여 배움을 극진히 한	料識雄深極學流
부류임을 알겠네	
燕石은 본디 신주를 싸는 물건이 아니기에	燕石元非韞韞物
連城의 흰 구슬을 응대하기 어렵네	連城白璧竟難酬

- 山田原欽, <次韻奉漢洲公案下>(1-5)

이담령이 詩주머니 가득한 풍월로 수창하자고 하자 山田原欽이 차운한 것이다. 이담령은 앞선 시에서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어와 기묘한 필치가 무리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세속을 벗어나 사랑스러우며, 신선 같은 자태와 옥 같은 골격 또한 江東 제일²⁹⁾이라고 그를 추켜세웠었다. 이에 山田原欽은 자신을 ‘燕石’으로, 이담령을 ‘連城의 흰 구슬’에 빗댄다. ‘燕石’은 옥과 흡사하게 생긴 중국의 燕山에서 나는 돌의 이름이다. 宋의 어리석은 자가 이 돌을 진짜 옥으로 믿어 애지중지하다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전해지는 것으로 흔히 ‘어리석은 자’ 또는 ‘보잘 것 없는 물건’을 가리킨다.³⁰⁾ 또 ‘連城의 흰구슬’은 趙나

27) 이담령, <奉次復軒詞案>(1-2), “天教壯觀屬詩人 特地風烟到底新 虛館枉來驚客夢 枕邊寒韻立霜筠”

28) 山田原欽, <重次前韻奉李公>(1-3), “自是乾坤許俊人 雅筵逢接玉篇新 鴈鴻弱羽元難較 奇弄高吟過露筠”

29) 이담령, <重謝復軒詞案>(1-4), “年猶童丱 而新詞妙筆 拔群超俗 仙姿秀骨 亦江東第一人物”

30) 『太平御覽』, 권51, 「引」, <闕子>, “宋之愚人 得燕石于梧臺之東 歸而藏之以爲大寶 周客聞而觀焉 端冕玄服以發寶 草匱十重緹巾十襲 客見之盧胡而笑曰 此燕石耳 與瓦

라 사람 卞和가 산속에서 캐낸 원석으로 만든 ‘和氏璧’이다. 趙나라 惠文王이 소장하고 있었지만 강대국인 秦나라 昭王이 15城과 바꾸자고 한 것을 藺相如가 지혜롭게 해결했다고 알려진 천하제일의 보석이다. 山田原欽은 ‘燕石’과 같은 자신의 보잘 것 없는 실력으로는 ‘和氏璧’과 같은 이담령을 응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겸손해한다.

이담령의 뒤를 이어 山田原欽과 필담창화의 물꼬를 튼 이는 스스로 소동파라 칭할 정도로³¹⁾ 문재가 뛰어났던 성완이다. 성완은 자신의 문집인 『翠虛集』이 전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³²⁾ 생애가 비교적 자세하게 알려져 있다. 그는 자 伯圭, 호 翠虛·翠虛居士·海月軒·海月軒主人·大觀齋·月翁으로 의술이 뛰어난 아버지 成後龍과 어머니 金尙容의 서녀 김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4세때 어머니를 여의고 이후 南老屋으로부터 『사략』을, 鄭斗卿으로부터 『사기』와 『장자』를 배워 28세인 1666년 아우 成璟과 함께 詩題 <五色官袍當舞衣>와 賦題 <蕪香祈才>로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 진사가 되었다. 44세에 金錫胄의 천거로 통신사 제술관에 발탁되어 왕성한 활약을 펼쳤다. 일본인들은 그가 曹子建의 七步詩보다 더 빨리 3, 4步만에 시를 짓는데 놀랐다. 1711년 사행 때는 접반과 안내를 맡은 新正白石과 雨森芳洲가 통신사를 따라다니며 그의 안부를 묻기도 했을 정도였다.³³⁾

璧不異 主人大怒 藏之愈固”

31) 임방, 『天倪錄』, 「孟道人携遊和詩」, “雖長篇大作 使人秉筆 口呼如流 一揮而就 至自比於東” 성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조창록, 「成琬의 『翠虛集』과 大明義理의 시」,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손혜리, 「연경재 성해옹 산문의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5; 「성완의 『일동록』 연구」, 『한국실학연구』 17, 한국실학학회, 2009를 참조.

32) 『翠虛集』은 모두 4권 2책의 목판본으로 1766년 箕營 곧 평안감영에서 발간하였다. 원본은 일본 東京대학 阿川文庫에 소장되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994년에 수집하여 영인하였다. 그 중 사행의 견문과 소회 및 일본문사와 수창한 시 33수가 권4 『日東錄』에 수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손혜리, 위의 논문, 2009, 46쪽 참조.

33) 임수간, 『東槎日記』, 「江關筆談序」, “每爲倭人作詩 倭人亦驚其速 輒叉手拜曰昔曹子建有七步詩 公乃三四步而就之耶 源璵雨森東 倭之所稱秀傑才士也 歎慕公彌深 嘗

山田原欽이 이담령에게 먼저 시를 주어 화답을 요청한 것과 달리, 성완은 山田原欽에게 먼저 시를 주어 수창을 유도한 뒤 연거푸 다른 운을 사용하여 다시 화답을 구한다.

(가) 蘭成의 射策보다 한 살이 더 많고	添一蘭成射策年
고운 자태 바른 의표 그야말로 시선일세	英姿雅望定詩仙
十洲의 옥나무와 삼신산에 달 떴으니	十洲琪樹三山月
그대와 함께 마땅히 백 편 시 지어리라	與子端宜做百篇

- 성완, <又贈一首復軒要和>(1-8)

(나) 조선의 인물을 보고 조선의 문장을 엿보아 목은 병폐를 질정하기를 희망합니다. 제 성은 山田, 자는 原欽, 이름은 熙이고 일본 周防州 출신입니다. 어려서 학문에 뜻을 가졌습니다만 체질이 연약하여 길에 나서지 못하니 성공하지 못할 것이 늘 걱정이었다가 우연히 이 모임에서 여행을 떠나오신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략) 비록 玉樹에 기댄 갈대처럼 부끄러움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 역시 일생의 큰 행운이라 시로 진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³⁴⁾

성완은 山田原欽에게 준 첫 시에서 그의 재주가 曹操의 記室이었던 陳林과 비슷하고 밝기는 바다 한 가운데서 나온 산호와 같다고 평가했었다.³⁵⁾ (가)는 성완의 두 번째 시로 이번에는 山田原欽을 ‘蘭成’에 빗대

從信使間公在否” 新正白石은 26세 때 1682년 통신사를 만나 자신의 시집인 『陶情詩集』의 서문을 요청하여 받았다. 이 통신사의 서문 덕분에 그는 당대 최고석학인 木下順庵의 제자가 되고, 스승의 천거로 幕府정치에 참여, 1711년에는 통신사 사행접대를 총괄 전담하게 되었다.

34) 山田原欽, <呈成學士>(1-10), “至陋之志 冀見其人窺其文 以有質于舊疾也 僕姓山田 字原欽 名熙 日本國周防之產 幼而志學 然資性弱植 不進于途 常恐不至于成也 偶羈旅于此…雖非蒹葭玉樹之愧 而亦一生之大幸得不述以詩乎”

35) 성완, <奉呈復軒要和>(1-6), “翩翩書記伴陳林 皎若珊瑚出海心”

어 ‘詩仙’으로 평가하고 함께 많은 시를 짓자고 권하고 있다. 蘭成은 六朝시대 최후를 장식한 인물로 당대 읍시 창작의 선구가 되었던 北周 사람 庾信(513~581)의 어릴 적 字이다.³⁶⁾ 그리고 ‘射策’은 漢나라 때 과거시험의 하나이다. 경서의 의의 또는 시무책에 관한 문제를 여러 개의 땃조각에 하나씩 써서 늘어놓고 응시자가 쏘아 맞힌 땃조각의 문제에 대해 답안을 작성하는 형식의 글이다. 성완은 庾信이 15세의 나이로 昭明太子의 侍讀이 된 것처럼 山田原欽 역시 14세의 나이로 長門州 菰藩 藩主 毛利吉就의 侍讀이 된 것을 칭탄하고 있다. 정확히는 山田原欽이 庾信보다 1살 더 아래 侍讀이 되었으니 ‘添’이 아니라 ‘減’이라 해야 옳다.

(나)는 자신이 庾信과 견주어진 것에 대해 기쁨을 감당할 수 없다³⁷⁾며 감사를 올린 山田原欽이 자신은 조선의 인물과 문장을 통해 자신의 묵은 병폐를 벗는 것이 소원이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나아가 ‘蒹葭倚玉樹’의 고사를 끌고 들어와³⁸⁾ 자신이 훌륭한 인물에 의지한 변변치 못한 인물이라 부끄러움이 없지 않지만 일생의 큰 행운인데 어찌 시를 짓지 않겠는가라며 수창에 적극적으로 응할 의지를 보인다.

첫 모임에서 이루어진 성완과 山田原欽의 酬唱은 각각 4수와 3수 등 총 7수에 지나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인상은 상당히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완은 山田原欽을 보자마자 玉雪같은 얼굴에 비단 같은 마음을 지닌 데다 창화마저 재빠른 것을 두고 ‘내용과 형식이 잘 어우러진 군자’라 평가한다. 또 1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리에서 빼어난 까닭

36) 그는 문장이 화려하고 아름다워 天上의 돌기린이라 불린 徐陵과 함께 ‘徐庾體’라 일컬을 정도의 명성을 얻었고, 『庾子山文集』 20권을 남겼다. 그에 대한 기록은 『周書』 卷41, 『列傳』 第33과 『北史』 卷83, 『列傳』 第71, 文苑條에 王褒 등과 함께 전한다. 임종욱 편, 『중국역대인명사전』, 이회, 2010, 1313쪽 참조.

37) 山田原欽, <奉和翠虛公重示韻>(1-9), “高詩以蘭成見褒拜歡何當”

38) 劉義慶, 『世說新語箋疏』, 下卷上, 「容止」, “魏皇帝使後弟毛曾與夏侯元並坐 時人謂蒹葭倚玉樹”

에 ‘長門州 태수가 제대로 된 인재를 서기로 얻었다’고 찬탄한다. 나아가 ‘장차 큰 기러기 나란히 날 큰 업적을 보게 될 것’이라며 山田原欽의 성취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낸다.³⁹⁾ 山田原欽도 성완의 시가 옥구슬 같고 걸출한 마음도 엿보여 맑은 모습 대하며 시 짓기가 어려운 까닭에 연약한 자질로 ‘詩仙’을 접대하기가 부끄럽다며 경의를 표한다.⁴⁰⁾

이국에서의 우연한 만남 참으로 신기하여	異邦萍水眞奇會
시구로 회포를 마땅히 풀어낼 수 있네	詩句猶能當說懷
어찌하면 그대와 광활한 곳 따라 노닐며	安得與君游汗漫
바다와 산 가는 곳곳 누대를 읊을까	海山隨處詠樓臺

- 홍세태, <次贈復軒秀才>(1-13)

홍세태가 山田原欽의 시에 차운한 것이다. 山田原欽은 이담령, 성완과의 수창에 이어 마지막으로 앞서 사용한 적이 없는 운을 사용해 나라는 다르지만 같은 취향을 가진 모임에서 보잘 것 없는 시를 바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청했었다.⁴¹⁾ 홍세태는 작품의 창작시기를 스스로 자세하게 기술한 자신의 문집 『柳下集』이 있어 생애가 비교적 자세하게 전한다. 그는 자 道長, 호 滄浪·柳下·來叔으로 무관을 지낸 洪翊夏와 강릉 柳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23세에 식년시 잡과에 응시, 한학관에 뽑혀 吏文學官이 되었다. 30세에 부사 李彦綱의 자제군관으로 임술사행에 참여하여 일본인들과의 필담창화를 활발히 펼쳤다. 그가 지나는 곳마다 담 위에 일본인들이 걸터 서면 말에 기댄 채 휘몰아 글을 썼고, 심지어

39) 성완, <謹次復軒示韻>(1-11), “一見知其玉雪其容 錦繡其腸 而且酬唱之際 動筆如飛 可謂文質彬彬君子人也 聞其年十六歲云 可謂夙成拔萃者矣 又知其長門太守之得書 記之能得其人也…英才成就吾何測 偉績將看竝大鴻”

40) 山田原欽, <奉賡翠虛見示韻>(1-7), “一章高詠等琅琳 圭復正看英傑心…拜觀清采不堪吟.; <奉和翠虛公重示韻>(1-9), “愧將弱質接騷仙”

41) 山田原欽, <奉滄浪洪公>(1-12), “殊邦同趣茲良會 許把微詞薦閣臺”

방에다 그의 모습을 그려두는 이도 있었다고 전해진다.⁴²⁾ 1763년 통신사 정사 조엄이 사명을 마치고 복명을 위해 입시하였을 때 영조는 당시 제술관 南玉의 활약이 무려 82년이나 앞서는 홍세태에 비하여 어떠하더냐고 묻기도 했다. 임술사행에 있어서 홍세태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했단가를 짐작할 수 있는 일화이다.⁴³⁾

홍세태에게 비친 山田原欽의 첫 인상은 ‘미목이 수려하고 태도가 단아하여 완전히 仙界에 있는 사람’⁴⁴⁾이었다. 그래서 홍세태는 盧敖가 北海에서 만난 선비를 따라 노닐고 싶어했듯 자신도 山田原欽과 함께 드넓은 세상을 따라 한가로이 노닐며⁴⁵⁾ 시를 읊조리고 싶다고 화답한다.

한편, 1차 모임의 말미에는 山田原欽과 통신사 세 문사의 필담창화 외에 松溪라는 인물도 등장한다. 그는 山田原欽이 홍세태에게 바친 <奉滄浪洪公>(1-12)의 운을 따 화운시를 남기고 있다.

손님 맞아 객관에서 수창한 것이 얼마나 되시고	賓賓館裏幾酬唱
백년 만에 오늘에야 좋은 회포 잘 풀었네	百年今日開好懷
만약 영재를 이역에 보내 살게 했다면	若遣英才生異域
王楊盧駱도 또한 발 밑에 두었으리	王楊盧駱亦興臺

- 松溪, <席上走和復軒見呈滄浪韻>(1-14)

42) 정래교, 『浣巖集』 卷4, 「墓文」, <滄浪洪公墓誌銘>, “肅宗朝壬戌 從通信使日本 蠻人紙牋乞求詩墨 所過堵立 公倚馬揮掃驟若風雨…至戶繪其像焉”

43) 조엄, 『海槎日記』, 「筵話」, 上曰 南玉比洪世泰申維翰 何如. 『柳下集』에는 임술사행 때 지은 30題 33首의 시와 임술사행과는 무관하지만 통신사행과 관련된 5제 22수의 시 및 <與日本野鶴山書>를 비롯한 3편의 산문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한태문, 『홍세태 사행문학 연구』, 『우암어문논집』 4, 부산외대 국어국문학과, 1994, 180~181쪽.

44) 홍세태, <次贈復軒秀才>(1-13), “眉目清揚 容止端雅 宛似神仙中人也”

45) 『淮南子』 권12, 「道應訓」, “盧敖游乎北海 經乎太陰 入乎玄闕 至於蒙穀之上 見一士焉…吾與汗漫 期于九垓之外 吾不可以久駐” 盧敖는 燕나라 사람으로 진시황이 불러 박사로 삼고 신선을 구해 오라 시켰지만 도망쳐 돌아오지 않았다는 인물이다. 劉安 편 · 이준영 역, 『회남자 · 하』, 자유문고, 2015, 145쪽, 각주1) 참조.

松溪가 조선 문사와 수창을 마친 山田原欽에게 부친 시로, 그는 먼저 山田原欽이 통신사를 만나 오랜 숙원을 풀 것을 축하한다. 그리고 만약 그대를 중국에 보내어 살게 한다면 당나라 측천무후 때 4才子로 일컬어지던 王勃·楊炯·盧照隣·駱賓王 같은 이도 하인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며 山田原欽의 재주를 칭찬하고 있다.

松溪는 堺의 九軒町에서 태어나 京都에서 難波默庵에게 배우고 다시 江戸에서 林羅山の 셋째아들인 鷲峰 林恕(1618-1680)의 제자가 된 小山朝三(?-1684)이다. 그가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승 林恕가 宗義眞에게 천거하여 對馬藩의 문서를 주관하는 書僧이 되어 對馬島로부터 통신사를 수행해왔기 때문이다.⁴⁶⁾ 게다가 통신사 三使와 文士에게 시문이 도착하면 가장 먼저 보고 필사한 후 對馬藩의 무사들에게 보고하거나⁴⁷⁾ 일본 문사와 통신사와의 만남을 가려서 주선하는 임무도 맡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탁월한 작시 능력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6월 25일, 對馬島에서 통신사와 첫 대면한 자리에서부터 “우러러 글을 논할까 하고 감히 찾아뵈었다.”고 밝히며 수창을 시도했다. 그리고 6월 29일에는 성완·이담령과, 7월 12일·13일에는 赤間關에서 성완·이담령·홍세태와 수창했으며, 9월 24일에는 역관 洪禹載에게 국화와 함께 시를 보내기도 했다.⁴⁸⁾ 그 결과 李聯齡은 그를 京都

46) 『堺市史』 권7, 別編, 第一編, 人物編, 제3장, <爛熟期>, 堺市役所, 1930, 169쪽.

47) 箕輪吉次, 「임술(壬戌) 1682년 사행(使行)과 후지산시(富士山詩)」, 허경진 편, 『통신사 필담창화집 문학연구』, 보고사, 2011, 151쪽.

48) 이는 모두 홍우재의 『동사록』에 보인다. ① 6월 25일, “僧倭曰 仰或論文 茲敢來謁 答以從容討論 可破客懷”

② 6월 29일, “西山朝三兩書僧來拜末席 要見學士 招入成李兩士 森靈呈詩使臣 請以賡和”

③ 7월 12일, “朝三倭每與成儒唱和詩文”

④ 7월 13일, “朝三僧又與成儒唱和數句 副行書記進士李聯齡副裨司譯僉正洪世泰亦能唱和”

의 柳川震澤, 江戸의 人見鶴山・林整字 등과 함께 ‘수창의 대가’로 손꼽혔고, 홍우재로부터는 “제술관을 비롯한 세 명의 문사와 만나질 동안 시를 주고받았는데 입만 열면 문득 대답하며 격조가 맑고 우아하여 글이 오랑캐 같지 않았다.”는 호평을 받기도 한다.⁴⁹⁾ 다만 호평과는 달리 『和韓唱酬集』에는 『韓客酬唱』에 수록된 1수 외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이 아쉽다.

2. 2차 모임 : 文才의 재확인과 이별의 아쉬움

山田原欽과 조선 세 문사의 2차 모임은 『韓客酬唱』에 ‘九月初二日韓客酬唱’이라 적혀 있듯 9월 2일에 이루어졌다. 통신사는 8월 21일에 江戸에 도착하여 20일을 체류한 뒤 9월 12일 江戸를 떠나 귀국길에 올랐기에⁵⁰⁾ 2차 모임 역시 江戸의 本誓寺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1차 모임이 對馬藩 書僧 松溪에 의해 주선된 것이라면, 2차 모임은 제술관 성완을 비롯한 조선 문사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다른 점이다.

제가 東都에 있던 날, 문득 長門州의 서기인 山田熙를 만났는데, 그 사람의 나이가 겨우 열여섯이었지만 시와 글씨에 능해 수창한 것이 자못 많아 장차 천리마의 기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듣건대 菊潭이 영재로 열일곱에 벌써 숙성하다 하니 그대 나라의 인재가 성대히 일어

⑤ 9월 24일, “平成昌進候三位 朝三送菊呈詩 即次以謝”

49) 『和韓唱酬集』 二之二, <東都筆語>, “馬島有小山 西京有吾公 東都則鶴山整字 可謂大家”

홍우재, 『동사록』, 6월 28일, “書僧朝三 與成進士琬李進士再齡洪僉正世泰 半日交詩 應口輒對 格調清雅 文不憚蠻貊矣”

50) 김지남, 『東槎日錄』, 『日本往還總目』, “同月二十一日到江戸留館二十日 九月十二日離自江戸”

나 장차 風雅를 이룰 것을 손뼉 치며 기뻐합니다. 菊潭公과 조용히 서로 만나기는 뒷날을 크게 바라고 山田씨는 저를 위해 한 번 만나자고 이 말을 전해주시시오.⁵¹⁾

柳川震澤이 스승 木下舜菴의 막내아들이자 자신의 제자인 菊潭(木下寅亮)을 내일 데려와 인사시키겠다고 하자 성완이 필담으로 대답한 내용이다. 柳川震澤은 『和韓唱酬集』 권2의 「西京筆語」·「滄浪筆語」·「盤谷筆語」·「東都筆語」 등의 필담과 권3의 <奉呈正使東山尹公啓>·<呈翠虛成公書> 등의 편지로 통신사와 필담창화한 유일한 일본인이다. 그런데 성완은 震澤의 바람과 달리 오히려 菊潭은 천천히 보기로 하고 山田原欽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에 대해 柳川震澤은 그가 영민하고 빼어나 문단에서 이름을 드날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반드시 성완의 말을 전하겠다고 대답한다.⁵²⁾ 결국 山田原欽과 통신사 문사와의 2차 만남은 山田의 능력을 높게 평가한 통신사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1차에서 이루어진 그에 대한 조선 문사의 평가가 결코 인사치레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⁵³⁾

(가) 가을날 찬 비 내려 흥을 부추겨 왔더니
조용한 시의 정취 뜨락에 가득하네

秋日雨寒催興來
蕭然詩景滿庭涯

51) 『和韓唱酬集』 二之一, 「西京筆語」 後, “僕在東都之日 忽遇長門州書記山田熙 其人年才十六 能詩能筆 酬唱頗多 將有千里駒之氣像 今聞菊潭之英才 十七既夙成云 貴邦人才蔚興 將繼風雅 爲之抃喜 菊潭公從容相逢 大望後日 山田氏爲余一見 爲傳此語”

52) 『和韓唱酬集』, “所諭山田熙 僕素知之 惠敏脫穎 頗翩翩于藝林之間…他日相逢 必以告高教” 菊潭은 9월 29일 京都 本國精舍에서 성완·이담령·홍세태와 만나 필담창화를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和韓唱酬集』 一之二를 참조.

53) 山田原欽이 벼슬하였던 萩藩, 곧 오늘날의 일본 山口縣 萩市에서는 그를 ‘儒學과 詩作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萩市향토박물관에는 그와 관련한 자료가 많이 소장되어 있다. 萩市史編纂委員會 編, 『萩市史』 제3권, 萩市, 1987, 535·583쪽.

놀라 깨서 주공이 떠나갔다 미워 마소서	莫嫌驚起周公去
좁은 식전의 사람이 준걸의 재주를	陋識頻要接傑才
자주 뵈고자 함이니	

- 山田原欽, <雨中訪翠虛成公旅館>(2-1)

(나) 옥나무 같은 모습을 한 분 비를 맞고 왔는데	玉樹風姿帶雨來
반가운 눈 마주하니 기쁨은 끝이 없네	青眸相對喜無涯
화려한 집에서 손잡고 맑은 시를 기약하니	華堂握手期清唱
불세출의 東都 인재 다시 시험해 보려네	更試東都不世才

- 성완, <走次復軒示韻>(2-2)

(가)는 山田原欽이 지난 밤 내린 비로 촉촉이 적셔진 객관을 찾아 성완에게 바친 시이고, (나)는 이에 대한 성완의 차운시이다. 먼저 山田原欽은 꿈속에서나마 周公을 다시 뵈올 수 없음을 탄식한 공자에 빗대어⁵⁴⁾ 자신의 방문으로 행여나 성완의 단잠을 깨운 것이 아닌지 조심스레 여쭙는다. 그리고 성완에게 오직 준걸의 재주를 자주 뵈려는 욕심에서 찾은 것이니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양해를 구한다.

이에 대해 성완은 자신이 직접 만남을 요청한 당사자인 만큼 오히려 보기 드문 인재를 다시 만나 맑은 시 나누며 그 재주를 시험해보려는 기대감을 드러낸다. 그리고 바로 앞서 수창한 시와 다른 韻字를 사용하여 어린데도 나라의 대표적인 선비들을 뛰어넘는 명성을 지닌 그를 ‘江東의 沈休文’이라 칭찬한다. 休文은 남송의 문학가 沈約의 字로 그는 어릴 때부터 학문에 밝고 시문에 특히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山田原欽은 재주가 짧아 심약에 미치지 못해 성완의 칭찬이 오히려 부끄럽다고 겸손해한다.⁵⁵⁾

54) 『論語』, 「述而」, “子曰 甚矣 吾衰也 久矣 吾不復夢見周公”

그러나, 2차 모임에서 오간 시문의 대부분은 8월 27일에 국서 전달을 마치고 귀로에 올라야 할 통신사와 山田原欽의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타) 재주와 능력 높고 깊은 경지 이른 것 이미 보았으니 已觀才力到高深
 붓 휘두르자 먹 흔적이 용이 읊어 내는 듯 筆落墨痕龍欲吟
 주옥같은 시를 얻어 고금을 밝히길 원하니 願得瓊章煥古今
 나를 위해 가시를 잘라 야윈 마음 적서 주오 爲我剪棘潤枯心

- 山田原欽, <奉李學士>(2-5)

(라) 손잡고 만난 자리 정취가 그윽해 握手逢場情味深
 가을비 내리는 객장에서 함께 한가롭게 읊네 客窓秋雨共閑吟
 내일 아침 이별 후의 슬픔을 견디려 明朝別後堪惆悵
 거친 시 베껴 써서 내 마음을 바치네 爲寫荒謔贈我心

- 이담령, <走謝復軒秀士>(2-6)

(마) 그대 고운 문장 많은 데다 필력 또한 구름을 뚫으니 多君麗藻筆凌雲
 세상을 내려 보아 짝할 이가 없다네 高視乾坤思不群
 만나자 곧 내일이 이별임을 알지만 邂逅卽知明日別
 우선 담소를 나누며 함께 문장이나 논하세 且將談笑共論文

- 홍세태, <次贈復軒秀士>(2-8)

(타)는 山田原欽의 시로, 이담령의 시가 마치 용이 읊어내는 듯하다고 칭찬한 뒤 시로써 고금을 밝히려 하니 떠나보내는 슬픔으로 야위어버린 자신의 마음을 축축이 적여주기를 바라고 있다. (라)는 이담령의 차운

55) 성완, <又贈復軒要和>(2-3), “少行盛名超國士 悅逢江左沈休文; 山田原欽, <奉和翠虛成公示韻>, 却慚明鑑枉褒譽 才短安能解古文”

시로 비록 거친 시라도 山田原欽에게 바침으로써 이별 뒤의 슬픔을 이기기 위한 자신의 마음을 전한다. 나아가 이담령은 성완이 앞서 山田原欽에게 준 시의 韻字를 사용하여 ‘높은 하늘을 올라가는 가을 매처럼 무리 속에 뺄어난 신선의 자태를 지닌 존재로 그의 문장이 오래토록 빛날 것’이라며 山田原欽에 대한 축원도 아끼지 않는다.⁵⁶⁾ 그리고 (ㄸ)는 흥세태가 ‘이백의 시는 맞수가 없으니 / 詩想이 거침없이 짝할 자가 없더라’⁵⁷⁾는 두보의 시를 끌어와 山田原欽의 文才를 찬탄하고, 만남과 이별은 정해져 있으니, 못다한 문장이나 실컷 나누자고 제의한다. 이에 대해 山田原欽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아껴가며 문장을 함께 이야기 하자’며 흔쾌히 응한다.⁵⁸⁾ 그러나 막상 정해진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자 山田原欽은 조선의 세 문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바치며 작별을 고한다.

만나자마자 문득 서로 이별이니	相見便相別
잠시 학의 무리에 들었었네	暫時入鶴群
어느 해나 다시 얼굴 대할지 몰라	何年重對面
좋은 시구 일부러 그대들에게 권하네	好句故勸君
황하와 한강에 뜬 밝은 달은 같고	河漢同明月
동쪽 서쪽 흰구름도 같다네	東西共白雲
좋은 만남 참으로 다시는 없을 것	良逢眞不再
잠시라도 생각나면 뛰어난 문장을 마주하리다	須想見雄文

- 山田原欽, <席上贈翠虛漢洲滄浪三子別>(2-10)

56) 이담령, <用塵三韻呈復軒案>(2-7), “秋鷹整翮九霄雲 爲愛仙姿迥不群 白雪陽春誠寡和 海東千載耀奎文”

57) 杜甫, 『杜少陵詩集』, 권1, <春日憶李白>, “白也詩無敵 飄然思不群”

58) 山田原欽, <重次前韻奉和滄浪子>(2-9), “愛惜寸陰共道文”

비록 이틀간의 짧은 만남이지만 학의 무리에 들어 함께 시문과 필담을 나누며 든 정은 시간과 횃수를 넘어선다. 게다가 서로 바다를 두고 멀리 떨어진 이국에 있는지라 오늘 이별하면 언제 만날지 기약할 수도 없어 훗날 생각날 때마다 마주하기 위해 일부러 좋은 시구를 많이 권했다고 고백한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노숙한 어른 그 이상으로 이별의 아쉬움을 짙게 드리우고 있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국립해양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韓客酬唱』을 살펴보면,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韓客酬唱』은 1682년 새로운 關白 德川綱吉의 습직을 축하하는 통신사가 일본에 파견되고 문학을 담당하는 양국의 문사 교류가 활발해진 결과물 가운데 하나이다. 『韓客酬唱』은 일본 長門州 萩藩의 서기인 山田原欽이 제술관 成疏, 종사관 서기 李聃齡, 부사 비장 洪世泰 등 통신사 문사들과 2차례 필담창화한 詩箋들을 모아 1683년 5월 두루마리로 만들고 『天和二年八月廿有九日韓客酬唱』이라 표제를 단 것이었다.

둘째, 『韓客酬唱』은 세로 29cm, 가로 935cm의 紙本墨書로 한 폭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으며, 1차 모임에서 15수, 2차 모임에서 10수 등 총 25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시의 형식은 山田原欽이 조선의 문사 모두에게 이별하며 준 <席上贈翠虛漢洲滄浪三子別>이 오언율시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칠언절구인 것이 특징이다. 이는 서정성을 강조하면서도 짧은 만남에서 빠르게 수창하는데 가장 적합한 장르였기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韓客酬唱』의 내용은 크게 1차 모임(8월 29일)과 2차 모임(9월 2일)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1차 모임은 對馬島 記室 松溪(小山朝三)의 소개로 이루어졌으며, 오랜 동안 통신사와 필담창화를 원하던 자신의 소망이 실현된 데 대한 山田原欽의 감회와 함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文才가 뛰어난 이국의 영재에 대한 조선 문사의 찬탄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 2차 모임은 제술관 성완을 비롯한 조선 문사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이는 통신사행에서 극히 예외적인 일로 서로의 文才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만나자마자 곧 이별해야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처럼 『韓客酬唱』은 비록 단 2차례 만남의 결과물이긴 하지만 당시 통신사 문사에 대한 일본인의 문화교류에 대한 열망은 물론, 17세기 이후 문학을 비롯한 일본 문화계의 전반적인 성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교류사적 의의를 지닌다.

| 참고문헌 |

1. 자료

『天和二年八月廿有九日韓客酬唱』(국립해양박물관 소장)

김지남, 『東槎日錄』

임방, 『天倪錄』

임수간, 『東槎日記』

정래교, 『浣巖集』

조엄, 『海槎日記』

홍세태, 『柳下集』

홍우재, 『東槎錄』

『增訂交隣志』

劉義慶, 『世說新語箋疏』

人見鶴山, 『韓使手口錄』
『和韓唱酬集』

2. 저서

- 구지현, 『통신사 필담창화집의 세계』, 보고사, 2011.
구지현 · 고운기 · 하우봉 · 유경미 역주, 『和韓唱酬集』, 보고사, 2013.
부산문화재단 · NPO법인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한일공동등재추진경과보고회 자료집』, 2015.
_____,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한일공동신청서 조인식 자료집』, 2016.
三宅英利 저, 손승철 역, 『근세 한일관계사 연구』, 이론과실천, 1991, 253~261쪽.
劉安 편 · 이준영 역, 『회남자 · 하』, 자유문고, 2015.
허경진 편, 『통신사 필담창화집 문학연구』, 보고사, 2011.

堺市役所, 『堺市史』, 堺市, 1930.
大藤純, 『防長史談』, 卷2, 山口博古堂, 1893.
東條耕, 『先哲叢談』, 1892.
安藤紀一 編, 『山田原欽』, 明倫同窓會事務所, 1940.
村田峯次郎 編, 『山田原欽源先生事蹟』, 1890.
萩市史編纂委員會 編, 『萩市史』 3, 萩市, 1987.

3. 논문

- 김영국, 「白玉峰의 칠언절구에 대하여-소재 ‘夕陽’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12집, 조선대 인문과학연구소, 1990.
손혜리, 「연경재 성해응 산문의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5.
_____, 「성완의 『일동록』 연구」 『한국실학연구』 17, 한국실학학회, 2009.
조창록, 「成琬의 『翠虛集』과 大明義理의 시」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한태문, 「淸見寺 소장 시문에 반영된 한일문화교류」 『조선통신사연구』 3, 조선통신사학회, 2006.
_____, 「相國寺 慈照院 소장 『韓客詞章』 연구」 『일어일문학』 42, 대한일어일문학회, 2009.

_____, 『福禪寺 소장 通信使 遺墨 관련 자료 연구』 『어문연구』 80, 어문연구학회, 2014.

箕輪吉次, 『壬戌使行における小山朝三の位置と役割』 『일본학연구』 34, 단국대 일본연구소, 2011.

투고일: 2016.10.17. 심사완료일: 2016.11.20. 게재확정일: 2016.12.07.

| Abstract |

A Study of *Hangaeksuchang* Possessed in the
Korean National Maritime Museum

Han, Tae-moon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Hangaeksuchang*(韓客酬唱) possessed in the Korean National Maritime Museum,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poetry in it, and the aspects of the exchange of writers in both countries.

Hangaeksuchang is one of the results of the active exchanges between the writers of the two countries when Tongsinsa celebrating the enthronement of a new Shogun in 1682 was accredited to Japan.

Yamada Fukuken(山田原欽), the scribe of the Hagihan(萩藩) of Japan, gathered the contents of the written conversations and poems with Seong wan, Lee Damryeong, Hong Setae, etc, which was made in two meetings and made them into a scroll in May 1683. The number of poems in the first meeting is 15, and that of poems in the second meeting is 25, so there are a total of 25 poems.

The form of poetry emphasizes lyricism, but in order to be able to respond quickly in a short meeting, all poems are made of a quatrain with seven-word lines except for only one poem.

The contents of *Hangaeksuchang* can be divided into the first meeting (August 29th) and the second meeting(September 2nd). The first meeting arranged by the scribe of Tsushima was mainly concerned with the relief of Yamada Fukuken about the fulfillment of his desire for communicating with *Tongsinsa* and the praise of Joseon writers for literary talents of an

outstanding Japanese gifted person.

On the other hand, the main content of the second meeting made by the request of the Joseon writers are the reaffirmation of each other's literary talents and expression of the regret that they should soon be separated.

In this way, *Hangaeksuchang* has a significance of cultural exchanges in that it can show the general growth of Japanese culture including literature since the 17th century as well as the desire of Japanese for exchanges with Tongsinsa at that time.

Key words : *Hangaeksuchang*(韓客酬唱), Yamada Fukuken(山田原欽), Tongsinsa, written conversations and poems, Seong Wan, Lee Damryeong, Hong Setae